바이오산업 성장 방향 제시

익산시, 전문가토론회 개최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기반으로 생태계 확장과 혁신성장의 신동력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시는 11일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완공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기반으로 농생명 생태계 확장과 익산시 혁신성장의 신동력 추진을 위한 그린바이오 혁신파크로의 발전 방향 등 다각적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도내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가 중요 아젠다인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과 전북의 성장 동력화 방향에 대한 한국바이오협회의 발제를 시작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그린바이오 벤처 관련 기관별 역할 및 네트워크 방안, 국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의 차별화 전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중심의 확대 방안 등 전반적인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익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까지 그린바이오 분야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을 함열농공단지 일원에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 거점도시의 기반이 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익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시민이 주체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주민참여 프로젝트인 '익산시민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익산시, 시민 중심 맞춤형 정책 '발굴'

익산시는 시민이 주체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주민참여 프로젝트인 '익산시민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익산시민아카데미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팀을 구성해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익산 방문의 해' 맞이 관광 활성화,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방안,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생활 속 사회문제 해결 주제로 참가팀을 모집했다.

시는 제안된 총 8개의 참가제안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팀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2개월여 동안 워크숍, 선진지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사업 실현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아카데미는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시의원·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전국 대표 민관협치 프로그램이다"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3년의 긴 역사를 가진 익산시민아카데미는 그동안 총 66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는 대표 민관협치 프로그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공직기강 확립 조사감찰기능 강화 주문

정헌율 익산시장, 행정 합목적성 감사추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조사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코로나와 선거 등으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짝 다잡아야 할 때"라며 "행정의 합목적 감사기준을 마련해 공직기강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성과에 안주한 행정에서 벗어나 기존 체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해야 할 때이다"며 "기존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을 발휘해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시대"라며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주마가편(走馬加鞭)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정 시장은 "공직자 인사에 있어 공정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발탁지수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부서 단위 평가에서부터 개인 단위로 적극 행정 추진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표들을 포함하는 객관적 발탁 지표를 개발해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정 시장은 "재확산 추세인 코로나 대책과 대응을 강화하고 하절기 장마와 폭염이 지속됨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효율적 제2인생 위한 2022 미래설계 교육과정 개강

40대 이상 직장인들의 효율적인 제2인생 설계를 위한 국내 최고 생애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설계 교육과정이 개강한다.

군산시는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저녁 총 6회에 걸쳐 군산시립도서관(수송동) 5층 교양문화실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금리인상, 원자재 급등 및 물가 상승 등 세계 경제위기 현황에 대한 냉정한 현황 분석으로 은퇴 후 안전 자산관리를 위한 재무설계(보유 자산 파악 및 노후 생활비 산정), △은퇴 후 급격한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변화관리, △은퇴 후 정신건강과 연령별 운동법 등의 건강관리, △노후생활에 꼭 필수적인 법률을 알려주는 생활법률, △은퇴 후 중장년 일자리 찾기를 위한 재취업과 창업 등 40·50대 직장인들에 꼭 필요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 강사진은 현재 금융업체에 활동하며 삼성전자, KT 및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 중인 은퇴후 자산관리 관련 국내 최정상의 전문가인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설계 이사, 실생활 법률에 정통한 양소영 변호사, 은퇴 후 변화관리 대처 전문가인 김경묵 전 ㈜삼성전자 수석 디자이너, 국내 최고의 정신 건강관리 전문의사인 표진인 원장, 생애설계 관련 16년 경력의 컨설턴트 정도영 사람과직업연구소 대표 등 강사 전원이 국내 정상의 현장 실무가들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은퇴준비에 관심 있는 40대 이상 관내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생 40명을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선착순 모집했다. 모집 첫날 오전 정원 마감은 물론 예비대기자 10명 또한 조기 마감됐지만, 시민들의 교육 참가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위해 군산시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전 직원 청렴라이브(Live) 교육 개최

군산시는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라이브(Live)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기관 대상 청렴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 청렴판소리, 샌드아트 공연,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즐길 수 있는 형식의 청렴 교육이다.

청렴라이브(Live) 교육은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청렴가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소리 '신 별주부전',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샌드아트 공연 '별이 빛나는 밤', 청렴 퀴즈를 통해 청렴 상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배워보는 '청렴 골든벨', 묵묵히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영웅(공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 시킨 '청렴 감동 영상' 등으로 2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됐다.

지루하기 쉬운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청렴라이브(Live)를 진행하기 전, 감사담당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직원 설문조사 결과, 2022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문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중점 추진해 '청렴 군산' 실천의 의지를 제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공무원의 청렴한 공직관 확립 등 청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주민자치 활동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익산시가 주민자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부안 모항해나루호텔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고문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유명 강사들을 초빙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액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위원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지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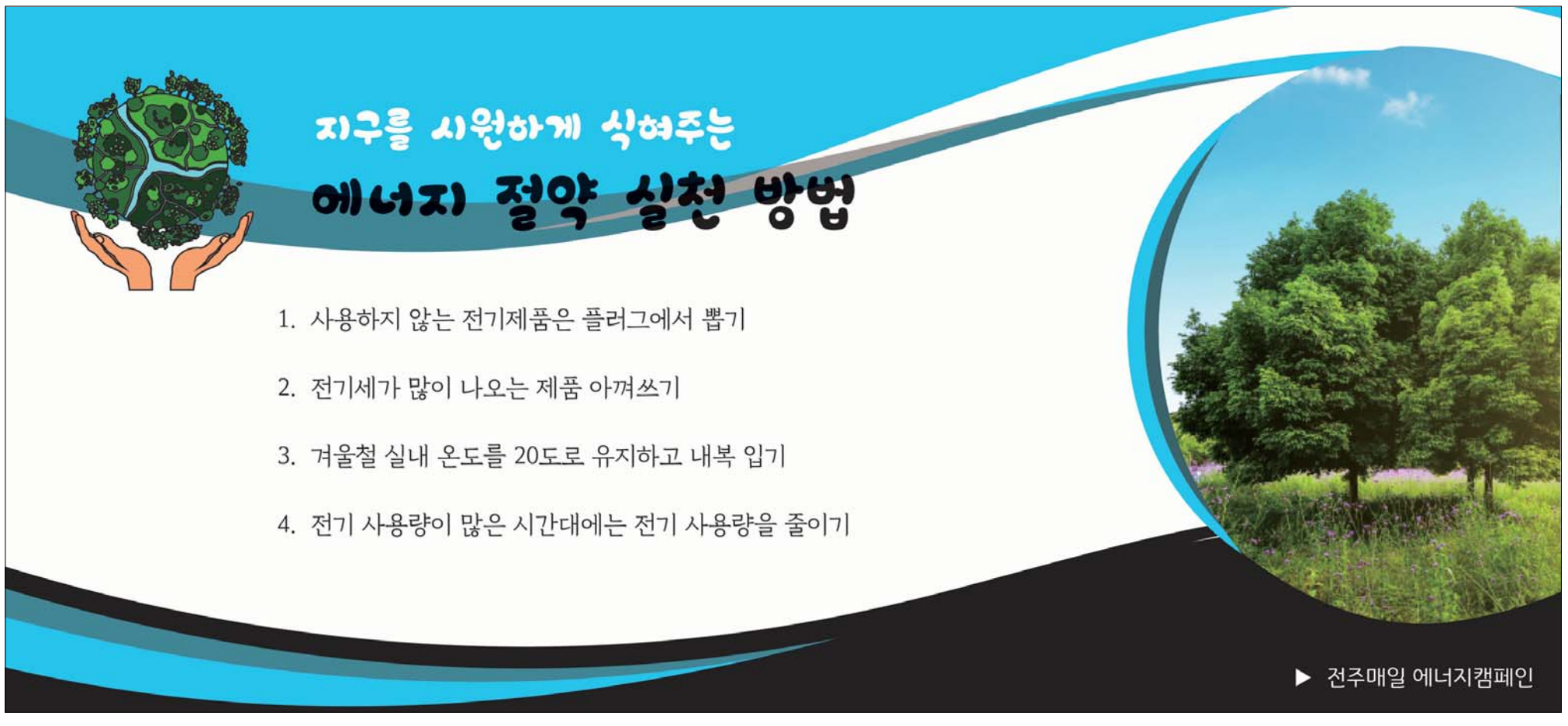
시는 전체 29개 읍면동 중 28개 주민자치위원회와 1개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약 68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지원

익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사회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11일 예술의 전당에서 관내 대학생들의 행정체험 연수를 위한 대학생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실시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시청 본청, 사업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오는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4주간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직무능력을 높이고 미리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 동안의 대학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으로 200명을 선정·지원해 올해 총 300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이재춘 기자